

大學保健診療所の

運營方案

鄭 俊

謨 (慶北大醫大教授)

I. 序

대학 보건진료소의 機能이 학생의 건강관리, 질병치료, 치료안내,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한 적절한 운영의 妙를 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및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대개의 대학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대학 보건진료소의 운영상에서의 개선점을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학생보건진료소의 現況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학생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당국에서 책정해 주는 事業費만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부담은 없음을 부언해 둔다.

II. 現況

1. 정기적인 身體檢査

학생들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졸업 후의 문제들을 생각하더라도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접촬영상 異常所見이 보일 때에는 직접촬영으로써 확인하고 그 이후 계속적인 항결핵제의 투약을 계속하여 치유될 때까지 지속한다. 또한 정기적인 體格檢査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매년 필요시는 이웃하는 보건소와 협조하여 장티푸스 및 콜레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2. 疾病치료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보건진료소도 종합병원과 같이 각 과의 전문의가 하루 종일 常住하며 학생들을 진료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人件費 및 施設投資가 소요되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교에서

〈표 1〉 진료시간 및 과목

요일	시간	13:30~16:30	기 타
월요일		내과(각종 검사 실시함)	진료의사는
화요일		이비인후과, 정신신경과	대학병원의
수요일		안과(안경처방), 치과	임상과과에
목요일		피부비뇨기과(각종검사실시)	서 조병진
금요일		내과	로함.

는 표 1과 같이 본교 부속병원의 전공의에게診療業務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밖에 지출되고 있지 않으며 항생물질 이외의 藥劑는 각 선생들이 약처방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물론, 간단한 외과적인 처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는 본교 부속병원 각 과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게끔 하고 있다.

### 3. 公傷진료 의뢰

학생들이 각종 수업중 신체에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여 본교 부속병원 해당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되 입원시는 5만원 이하, 외래 진료시는 3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 본교 학생보건진료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추려 보았으며 이를 다른 몇몇 대학들의 運營現況을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참고로 하여 현실정에서 가능한 개선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Ⅲ. 改善方案

### 1. 의로서설에 대한 投資

현재 각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해서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직접촬영 및 간접촬영 X선 裝置는 학교 또는 국가에서 투자하여야겠다. 그래야 1년간을 기해서 수시로 X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먼 안목으로 볼 때는 경비 감축 내지는 운영 원할이라는 면이 추가가 되겠다. 필요한 인건비에 있어서는 대학부속병원에서 X선 기사를 적당한 시간내에 배치시키든지 아니면, X선 기사로 하여금 일반 검사실 기사로 같이 활용하

면 원선 인원 감축을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일반 檢査施設인데 학생보건 진료소에서도 소변, 각종 혈액, 대변 및 간기능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변, 소변, 혈액검사의 試藥費는 얼마 되지 않으나 간기능 검사의 시약비는 상당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이 필요하면 원가는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 진료의사 配置

학생보건진료소장은 학교에서 하나의 補職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주하는 진료의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가급적이면 내과계이면 좋겠음). 왜냐하면 하루를 통해서 수시로 의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단, 이에 대한 處遇 문제는 장차 대학 교역에 임용되기 전에 1년 정도를 근무케 한다면 필요 경비도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아니해서 좋을 듯하다. 그 외各科의 의사진료는 본교에서 하는 바와 같이 1주일 중 요일을 정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3. 진료 酬價 및 진료 人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診療費는 무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학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료에 부담을 주어서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나 치과에서 발치 이외에 보철 등에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은 本人 負擔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꼭 필요한 일정액 이상(운영상의 모를 기하기 위해서 그 액수는 각 대학마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의 藥價는 피진료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 같다. 진료부에서 필요한 상주인원은 상기한 바 보건진료소장, 진료의사 외에 간호원, 약사, 검사, 기사 등 많은 인원이 있을수록 좋으나 어느 대학이든 그 運營費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진료의사 외에 간호원 1명, 보조간호원 1명으로서 치료, 투약 및 일반 행정적인 서류처리를 하되, 치료비의 수납은 해당 행정과(본교내에서는 학생처 소속의 후생과에서 함)에서 금전 수납에 적절한 사람을 지정하여 처리하되 두 부처간에 거리는 이웃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 4. 公傷 처리

이 문제는 각 대학간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바, 그 결정액은 어렵지만 일반회사의 産災患者의 처리처럼 전부 무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서 치아를 대치한다든가 식피수술 따위의 그 치료비가 수십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그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 5. 無料治療 환자 처리

대개의 학생들은 젊은 연령층이라서 큰 疾病을 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간혹 상당히 오랜 시간을 또 많은 경비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학생 중 그 가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치료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해당 대학의 학장의 추천으로

한 대학에서 1년에 1~2명 정도는 기성회 補助金으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해당대학 부속병원에서 황색카드 환자와 같이 취급, 무료로 치료해주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아 물론 학생들은 그의 학창생활을 통해서 외적인 要因에 의해서 공부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상을 요약하면 학생보건 진료소의 機能은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무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해당 전문 교수와 상담함으로써 그의 학창생활을 통해서 면학에 열중하게끔 도와주며, 이의 연속인 社會生活를 잘 영위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 건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해당 대학 또는 국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投資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